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’25.06.18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집행위, 민간 및 군사 연구간 연계 강화 계획(6.16)

- 집행위는 민간과 군사연구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. 자하리에바 집행위원 내각 구성원인 Aleixo는 민간 연구프로그램 내 이중용도(dual-use) 연구 뿐만 아니라 민간과 유럽 방위 연구 프로그램 간 상호작용을 촉진할 방안을 모색 중임을 밝힘
- Aleixo는 국방 분야에 응용 가능한 민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는 것과 동시에 군사기술이 민간으로도 확산되는 미국의 기술 전이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
- 2028년 이후 차기 프로그램이 이중용도 프로젝트에 개방될 수 있지만, 그 내용과 범위는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

○ 유럽의회 의원들, 600억 유로 규모 독립 우주 프로그램 요구(6.12)

- 유럽의회 의원들이 다음 EU 우주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예산이 명확히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(최소 600억 유로). 유럽의 우주 기술 자립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
- 의원들은 우주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최근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, 우주 프로그램을 다른 기금과 통합하는 방안에 반대함. 외부 기술 의존과 보안 문제도 우려함을 표명
- 또한, 향후 별도 우주 프로그램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(FP10)처럼 추진 되길 기대

○ 연구기관 협회, FP10에 2,200억 유로 예산 보장 요구(6.12)

- 유럽 연구자들과 기업인들은 집행위에 FP10 예산과 독립성 보장을 촉구 하는 공개서한을 제출. 2028~2034년 차기 FP10에 대해 총 2,200억 유로의 명확히 구분된(ringfenced) 예산을 요구
- 폰데어라이엔이 발표한 ‘독립형’ FP10 방침은 환영하나, 경쟁력기금과의 연결성에는 우려를 표명. 연구자금 부족을 FP10이 반드시 메울 것을 주장